

“우리는 보았다. 사람들이 개 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그러나 신문에 한 줄 신지 못했다.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

제 63회 신문의 날 기념식
문재인 대통령 축하 통해
5·18 당시 광주일보 기자들
용기있는 행동 재조명
“검열의 시대에 보여준 용기
광주시민들에 위로와 격려”



4일 오후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3회 신문의 날' 기념 축하연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축하에 앞서 한국신문협회 부회장이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과 악수를 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제63회 신문의 날을 맞아 80년 5월 당시 광주일보 기자들의 용기있는 행동이 재조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3회 신문의 날 기념 축하연에 참석, 축하를 통해 80년 5월 광주일보의 전신이었던 옛 전남매일신문 기자들의 양심과 용기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축하를 통해 “1980년 5월 20일 전남매일신문 기자들의 양심이 담긴 공동 사표(아래 사진)가 2만 장의 호외로 뿌려졌다”면서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 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 단 한 줄도 신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고 적혀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재와 검열의 시대에 보여준 신문의 용기 있는 행동은 고립된 광주시민들에게 뜨거운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당시 기자들의 공동 사표가 담긴 호외가 뿌려진 뒤 5월 21일부터 10일 동안 광주일보의 전신인 옛 전남일보와 옛 전남매일신문의 발행이 중단되는 등 언론 기능이 전면 마비됐다.

하지만, 엄중한 신군부의 언론 검열 속에서 1980년 6월 2일 옛 전남매일신문은 ‘아, 광주여’ 그리고 옛 전남일보도 ‘무등산은 알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들을 게재하며 광주의 아픔을 대변했다. 옛 전남일보는 다시 발행한 신문 1면에 “애독자 여러분께 알립니다. 필설로는 감히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참극을 참고 견디신 애독자 여러분 앞에 보낼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로 시작한 ‘속간의 말씀’을 담았다. 그 아래에는 “광주사태 희생자 명부를 빙니다”라는 사원 일동 명의의 7단 광고를 실어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기도 했다. 이후 옛 전남일보와 옛 전남매일신문은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 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 단 한 줄도 신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
1980. 5. 20
전남매일신문기자 일동
현 광주일보

4일 제 63회 신문의 날 축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의 양심과 용기를 보여준 사례로 언급한 1980년 5월 20일 광주일보(옛 전남매일신문) 기자들의 공동 사표. <광주일보 자료사진>

신군부의 언론사 통폐합 정책에 따라 1980년 11월 29일 문을 닫게 된다. 두 신문은 통합돼 제호를 ‘광주일보’로 하고 12월 1일 창

간호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발행되고 있다. 당시 옛 전남일보의 사육이었던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은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와 금남로를 지키던 시민군이 계엄군의 진압과 총격을 피해 찾아들었던 ‘도피처’이기도 했다. 전일빌딩 안팎에는 당시 계엄군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헬기에서 난사했던 기관총 총탄의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있다. 전일빌딩은 또 영화 ‘택시운전사’에서도 나왔듯 5·18당시 내외신 기자들이 시민의 항거와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 과정을 취재·보도했던 ‘격동의 현장’이기도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옛 전남매일신문 기자들을 언급한 것은 기자를 비롯한 신문인들의 양심이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 목소리를 대변할 때 신문은 존경받는다”면서 “공정하고 다양한 시각을 기초로 한 비판, 국민 입장에서 제기하는 의제설정은 정부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국민만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문인의 양심이 자유롭게 발현되고 신문이 힘없고 소외된 사람을 대변할

때 사회가 더 나은 공동체로 발전한다”며 “정부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제63회 신문의 날 기념축하연은 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가 주최했으며, 축하연은 이병규 회장의 환영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한국신문협회 부회장인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의 한국신문사·신문협회상 수상자들에게 대한 시상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회원사 발행인 및 정계, 재계, 학계, 언론계 등에서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병규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반석인 신문은 뉴스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소중히 키워가야 할 국가적 자산”이라며 “하지만, 미디어시장이 사비비 유사언론과 가짜뉴스로 인해 오염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는 이성과 판단력, 통찰력을 마비시키고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을 해치는 등의 부작용이 크므로 정론신문이 빛을 발하고, 힘을 내야 가짜뉴스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국회 다시 4당 체제 변화 예고

정의당, 보선 승리 6석으로
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 추진

정의당이 경남 창원 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서 3당 체제의 국회가 4당 체제로 전환되는 등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번 보선 승리로 정의당 의석이 6석이 되면서 14석의 민주평화당과 교섭단체를 다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지난 4월 ‘평화와 정의의 모임’이라는 이름의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했지만 노회찬 의원의 사임으로 교섭단체 지위를 잃은 바 있다. <관련기사 3면>

당장, 정의당은 교섭단체 재구성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여영국 당선인은 4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가장 진보적인 교섭단체를 구성해 민생과 정치 개혁을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가장 먼저 하고 싶다”고 말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당 회의에서 “평화당과 교섭단체 구성을 통해 멈춰버린 국회를 정상화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 복원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또 5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자리에서 터놓고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상호 협력을 통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 입법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동 교섭단체 재구성에 대한 평화당 내부 반응은 미지근하다.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 구성은 결국 여권과의 개혁입법 공조를 위한 것인데, 그동안 민주당이 별다른 호응을 보이지 않은데다 정의당 좋은 일만 만들어 줬다는 것이다. 또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평화당의 현재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결정적 방안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마디로 정치적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공동교섭단체는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과 무소속 의원들이 함께 하는 제3지대에서의 정계개편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평화당 중진 의원은 “공동교섭단체를 재구성한다고 해도 평화당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며 “현역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있어 5일 의원총회에서 공동교섭단체 재구성을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교섭단체 지위 확보에 따른 정치적 위상과 내년 호남 국고 예산 등을 감안하면 일단 공동교섭단체 재구성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확고한 대안도 없이 교섭단체 재구성을 반대한다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여부가 지역 정치 지형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개혁 입법을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한다는 여론은 높은 현실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인권운동 대부’ 고 흥남순 변호사
5·18 재심 39년 만에 무죄 ▶6면

새 출구장 개막전서 1호골
손흥민, 토트넘의 역사가 되다 ▶20면

사람과 감사의 65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친환경양식 기술이전 ONE-STOP 창업지원센터

친환경양식 기술이전교육 지원 | ONE-STOP 창업지원 컨설팅 지원 | 친환경 양식업체 모니터링 지원

2017~2018년 2년간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창업에 성공했습니다.

양식 창업 5대 고민!!
해양수산부가 해결해드립니다!!

- 하나** 청년인데, 창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블루오션, 바다 및 내수면에서 창업하세요. 건강한 먹거리 생산·유통·가공하여 꾸준한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 둘** 배우는 비용이 걱정입니다. 배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대부분을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합니다.
- 셋** 귀어·귀촌해서 적응할 수 있는지 걱정입니다. 이미 귀어·귀촌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배들에게 생생한 경험담을 듣고 면밀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넷** 창업해서 잘 될지 자신이 없습니다. 창업자간 네트워크를 구성, 사후 컨설팅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 다섯** 연고도 없고, 기술도 모릅니다. 해양수산 각 분야 전문가들과 선배 어민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교육기관과 현장에서 직접 보고, 실습하면서 기술은 물론 노하우까지 전수 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창업에 도전하세요.
답을 드리겠습니다.

경남·전남 어촌특화지원센터 내 친환경양식 ONE-STOP 창업지원센터가 올 상반기 양식업 창업 및 취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기술이전교육, 창업지원컨설팅, 모니터링 참가자 및 업체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5~6월 모집공고, 7~8월 기술이전교육 진행 예정)

원다리새우 양식 창업자

고0찬(충남 태안) 김0혁(인천 강화) 김0희(인천 옹진)
김0현(전북 익산) 박0웅(충남 부여) 배0준(충남 태안)
신0성(전남 무안) 이0형(경남 남해) 정0영(충남 태안)
천0주(전남 신안) 최0종(전남 영암) 최0욱(경남 사천)
추0선(경남 거제) 허0완(전남 신안)

큰정거미새우 양식 창업자

강0용(경남 산청) 권0도(경북 경산) 김0열(전남 장진)
김0우(경남 부산) 김0민(경남 하동) 김0일(전남 영암)
김0구(전남 화순) 김0주(경북 청송) 박0홍(경남 울산)
박0영(충남 금산) 박0영(경북 청송) 박0이(전남 나주)
심0우(전남 신안) 안0홍(전남 목포) 오0형(강원 홍천)
이0남(전북 고창) 허0지(경북 성주)

해양수산부

FIPA 한국어촌어항협회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문의처 |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 : 055-642-5762 /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 062-220-0588